

미래의 꿈을 담은 책 만들기, 그래서 아름다운 이 땅의 어린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는 날이에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지난 5월 17일, 방과 후 안양 2동에 사는 아이들은 꿈나무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에서 <나만의 책 만들기>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들뜬 마음으로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눠 준 종이를 접어가며 그 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다. 아이들은 작가 겸 편집자로 변신하는 기회를 얻고 한껏 들떠 있었다.

행사는 관객 중심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는 갤러리 <스톤 앤 워터>와 <책만들며 크는 학교>, 그리고 그림작가 15인이 함께 했다. “서울에는 큰 전시가 많잖아요. 안양까지 오는데 힘들기도 했지만 작고 외진 곳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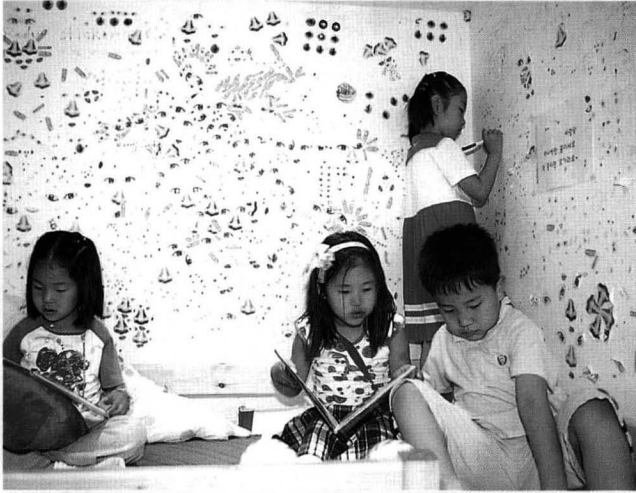
<나만의 책 만들기> 행사를 위해 꿈나무 도서관 곳곳을 상상의 도서관으로 꾸민 15명의 작가들은 이미 갤러리에서 상상도

서관전을 기획했다. 권자연 씨와 채진숙 씨가 주축이 되어 모인 15명의 작가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관객들에게 던져주면서 아이들에게 도움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책, 휴지처럼 만들어진 책 등 다양한 모양의 책들이 전시를 통해 소개되었고 책 만들기 행사에도 이 디자인이 활용되었다. 이들은 운영이 어려운 도서관 상황을 알리고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고 싶었다며 참여 의도를 밝혔다. <책만들며 크는 학교> 선생님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종이를 접고, 오리기 시작했다. 두 시간 후 35명의 아이들은 팝업북 한 권씩을 완성했다. 두껍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날 행사 비용은 5,000원. 주최측은 참가비 전액을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에 기부했다.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안겨줄 책의 소중함을 전하는 날, 이날 행사는 그래서 아름다웠다. **출판**

김청연 기자

“야! 누워서 책 봐도 괜찮은가봐.” <스톤 앤 워터>의 <상상 도서관> 기획전을 찾은 아이들은 도서관에 들어가 신발을 벗고 책을 보는 이색경험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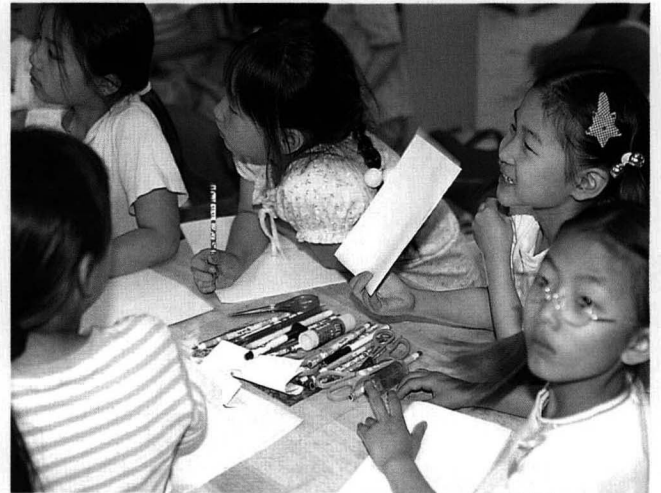
“특이하게 생긴 책이야.” 휴지처럼 생긴 책, 카드보다 예쁘게 만들어진 독특한 책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빛난다.



“어려분도 이런 책을 만들 수 있어요” 35명의 학생들이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에 모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접으면 되는 거야?” 이날 아이들은 종이를 접고, 오리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책을 완성해나갔다.



“무슨 말을 적을까?” 팝업북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생각하는 꼬마 저자들. 이들이 지라 미래의 저자들이 된다.



“드디어 완성했다” 두 시간에 걸쳐 책을 완성한 아이들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소박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